“선행 건네는 삶, 더불어 사는 세상 위해 노력”

●정철섭 승진엔지니어링 대표이사

30여년 전 새여천국제라이온스클럽 통해 기부·봉사 첫걸음

작년 12월 여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회사 봉사단도 운영

“선행 건네는 삶, 모두 다같이 잘사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철섭(64·사진) ㈜승진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지역 내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1990년 설립된 ㈜승진엔지니어링은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에 위치하며 석유화학기업의 설비 부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압력용기’, ‘열 교환기’ 등을 국제 규격에 맞게 직접 설계, 제작, 납품하고 있다.

정 대표는 21일 “어렸을 때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 생계 자립을 위해 고군분투했다”며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봉사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 올해 이들을 위한 단순 기부가 아닌 발굴과 후원을 함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사회복지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얘기를 듣고 필요한 물품이나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며 “기업은 사회적 책임이 있으며 이 책임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소통 후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께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여수시 아너소사이어티 21호(전남 148호)에도 가입했다.

정 대표의 봉사활동과 기부는 지난 1992년 새여천국제라이온스클럽에 가입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사)여수지구촌 사랑나눔회 이사, 여수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사)여수국가산단경영자협의회 이사 등을 맡으며 각 단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으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여러 홍보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장기 근속자와 우수 사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직원 복지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한 회사 자체 봉사단인 ‘마음이 봉사단’을 꾸려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과 환경을 돌보는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정 대표는 “해외 연수 혜택은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직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지만 코로나19 시기에는 진행하지 못했다. 올해 재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 대표는 올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발굴 및 실질적 지원도 목표로 하고 있다.

정 대표는 “나눔은 보약이라고 생각하며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보람을 느낀다”며 “서로가 조금씩 배려하고 양보하는 작은 선행이 사회를 밝게 만든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꾸준히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주성학 기자

동신대, 여성 리더십 최고위과정 입학식 성료

동신대학교는 21일 “전날 빛가람혁신도시 내 동신대 혁신융합캠퍼스에서 ‘DS-TOGETHER 여성 리더십 최고위과정: 펭귄의 선택’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체를 운영하는 여성CEO를 비롯해 전문직, 고위 공직자, 사회운동가 등 각계에서 활동 중인 35명의 여성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했다.

DS-TOGETHER 여성 리더십 최고위과정은 지역 여성 리더들의 요청에 따라 전남지역에 최초이자 유일하게 개설된 최고위과정이다.

지역의 여성 CEO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해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전남에도 여성 맞춤형 최고위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주희 동신대 총장에게 건의했고 이주희 총장이 이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면서 개설됐다.

이주희 총장은 “수도권-남성 중심 사회에서 숱하게 유리천장을 깨트리며 성장해 온 지역의 여성 리더들이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스스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깨닫고 교육과정을 요청하는 것을 보면서 퍼스트 펭귄이 떠올랐다”며 “퍼스트 펭귄의 본능과 판단력, 도전정신과 용기를 갖춘 강인한 여성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 최고의 강사, 좋은 교육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

GS칼텍스, ‘맞춤형 학습교실 운영 지원금’ 전달

여수교육지원청은 21일 “전날 GS칼텍스와 관내 4개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맞춤형 학습교실 운영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GS칼텍스, GS칼텍스 노동조합, 여수중, 여수구봉중, 무선중, 여남고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GS칼텍스와 GS칼텍스 노동조합이 4개 학교에 맞춤형 학습교실 지원금 5천만원을 기탁했다.

맞춤형 학습교실 운영 지원은 전남교육 교육지표 4-62 과제인 ‘학생 교육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GS칼텍스, GS칼텍스 노동조합,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력해 지난 2006년 20개교 100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8년 동안 관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복지 사업이다. 올해도 여수 관내 4개교(여수중, 여수구봉중, 무선중, 여남고)에 방과후학교 활동 운영비와 급식비(석식)를 지원해 관내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전광민 GS칼텍스 노동조합 위원장은 “우리의 사회공헌 슬로건이 ‘에너지로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인 만큼 GS칼텍스의 생산거점인 여수에서 지역사회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담양소방,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담양소방서는 “최근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사는 의용소방대 역사를 기념하고 숭고한 봉사·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윤예심 담양소방서장, 윤중천·임영자 담양군의용소방대 남녀연합회장, 박종원·이규현 도의원, 박준엽 담양군의회 부의장, 박은서 군의원, 의용소방대원·소방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윤중천·임영자 의용소방대 남녀연합회장은 “바쁜 가운데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분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예심 담양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는 소방관과 함께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늘 적극적으로 나서는 봉사정신에 감사한다”고 전했다./담양=정승균 기자

전남도, 목포역서 ‘결핵 예방의 날’ 홍보 캠페인

전남도는 21일 ‘제14회 결핵 예방의 날’(3월24일)을 맞아 결핵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목포역에서 결핵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홍보 캠페인에는 전남도, 목포시,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가 동참해 도민과 목포역 이용객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을 나눠주고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해 흉부엑스선 촬영 등 무료 검진을 했다.

결핵 예방 주간에는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라는 주제로 오는 24일까지 22개 시·군 보건소와 유관기관이 참여해 지역·기관별 동시 결핵예방 홍보활동을 펼친다.

/김재정 기자

광주여대, 26대 여운 총학생회 출범식 개최

광주여자대학교는 21일 “지난 19일 교내 국제회의장에서 ‘찬란하게 빛나게 남을 수 있게’라는 주제로 제26대 여운 총학생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서 여운 총학생회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공개했으며, 500개 좌석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참석해 새로운 총학생회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보내는 한편 총학생회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김태이(경찰법학과 4)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교 발전에 기여하는 총학생회가 되겠다”며 “학생회와 학교 행정, 학생들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찬란한 미래를 향한 여정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포부를 밝혔다.

이선재 광주여대 총장은 “여운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학교 발전과 학생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모두가 함께하자”고 당부했다.

/김다이 기자

목포경찰, 여성일상지킴이 2차 정기 간담회

목포경찰서는 21일 “전날 경찰서 3층 이준규 홀에서 여성일상지킴이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성일상지킴이는 목포시가족센터 등 15개 단체 20여명으로 구성돼 매 분기마다 간담회를 통해 목포시민의 눈높이에서 여성이 불안해 하는 요소와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김범상 목포경찰서장은 “112 종합상황팀·교통순찰차 등의 견학과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체험을 통해 경찰과 함께 안전한 목포를 만드는 데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김낙곤 광주MBC 대표이사 사장 재선임

광주문화방송 제18대 대표이사 사장에 김낙곤(사진) 현 사장이 21일 재선임됐다. 임기는 3년이다.

김 사장은 2021년 제17대 사장으로 선임돼 경영 흑자를 달성하고 영산강 캠페인, 영산강 그란폰도, 대한민국 김치 대전 등 대규모 사업을 통해 지역이 가진 문화자산의 가치를 조명하고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

방송언어를 우리말로 바꿔쓰기 위해 노력하고, 텔레비전 화면에도 ‘광주MBC’ 대신 훈민정음체를 이용한 ‘광주문화방송’으로 표기하는 등 우리말을 살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김 사장은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뉴스로 공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무등산, 영산강, 김치와 같은 우리 지역의 고유한 자연·문화·맛을 알리는 콘텐츠 제작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967년 여수 출생으로 광주과학고등학교, 중앙대학교 국어국문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 광주문화방송에 입사해 취재 부장, 문화사업부장, 보도국장 겸 전라도천년 특집 단장 등을 역임했다.

/최명진 기자

영암경찰, 2024 치안종합성과 보고회

영암경찰서는 “최근 2024 치안종합성과 분석 보고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기능별 주요 치안성과 항목과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향상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주현 영암경찰서장은 “기본 계획을 토대로 기술적인 접근과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다”며 “시스템을 활용한 스마트한 업무 처리로 군민에게 정성치안이 느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진도경찰,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안전교육

진도경찰서는 “최근 진도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찾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7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인회 교통관리계장은 관내에서 음주운전,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보행자 보호를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을 강조하며 안전운행을 홍보했다.

특히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회전 교차로 통행방법, 보행 시 우측통행, 전동스쿠터·휠체어 운행 시 안전모 착용 등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 퀴즈와 헬멧, 야광지팡이 등 교통 안전 홍보용품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형 교육으로 효과를 높였다.

박미영 진도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관내 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교통사고 줄이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부음

▲강영자씨 별세, 이형문(KT 부장)·이형주(동아일보 사회부 부장)씨 모친상, 박인규(전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장)씨 장모상=발인 22일(금) 오전 10시30분 광주 천지장례식장 203호(062-527-1000).